



#용기 관련 속담 따라쓰기

용기와 관련된 속담 4개를 모아 뜻과 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대표 표현은 ‘가시 무서워 장 못 담그랴’·‘저 중 잘 댕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댕다’·‘키는 작아도 담은 크다’입니다.

1 보기

바른 글씨의 뼈대와 획을 눈으로 읽습니다.

2 따라 쓰기

열은 글씨를 연필로 천천히 덮어 씁니다.

3 혼자 쓰기

십자 보조선만 보고 스스로 씁니다.

수록 속담 4개

01	가시 무서워 장 못 담그랴	2쪽	03	키는 작아도 담은 크다	4쪽
02	저 중 잘 댕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댕다	3쪽	04	포도청의 문고리 빼겠다	5쪽



연습 4쪽·짧은 속담은 한 쪽에 두 개, 긴 속담은 한 쪽에 하나만 글자의 모양과 간격을 살피며 천천히 써 보세요.

#용기 모아보기
이 주제 속담 더 보기





1 / 4

가시 무서워 장 못 담그라

조금 힘들거나 방해되는 일이 있더라도,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해내야 해요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가	시		무	서	워	
장		못		담	그	랴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가	시		무	서	워	
장		못		담	그	랴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2 / 4

저 중 잘 댄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댄다

남들이 빈말로 칭찬한 것을 진짜로 믿고, 신이 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쓸데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저 중 잘 댄 다 니 까

장 삼 벗 어 걸 머 지 고 댄 다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저 중 잘 댄 다 니 까

장 삼 벗 어 걸 머 지 고 댄 다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3 / 4

키는 작아도 담은 크다

몸집은 작아도 마음이 넓고 용감하다는 칭찬이야.

1 보기 획의 뼈대를 읽기

키	는			작	아	도
담	은			크	다	

2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덮어 쓰기

키	는			작	아	도
담	은			크	다	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

4 / 4

포도청의 문고리 빼겠다

옛날 경찰서인 '포도청'의 문고리를 몰래 빼올 수 있을 만큼 아주 대담하고 겁이 없다는 뜻이에요.

1 보기 획의 배대를 읽기

포	도	청	의	문	고	리
배				겠	다	

2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덮어 쓰기

포	도	청	의	문	고	리
배				겠	다	

3 혼자 쓰기 십자선만 보고 쓰기

오늘 따라쓰기를 마쳤습니다.

보호자 확인

